

五神과 儒家의 精神概念에 관한 비교 연구

최성욱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A comparative study on Five Mental(Hun, Shin, Beak, Yi, Zhi) and soul of Confucianism

Sung Wook Choi, Jung Soo Kang*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In Oriental medicine, Five Mental is a concept for understanding of man's mental structure. Spirit and body is inseparable relation in Oriental Medicine. Function of spirit and body is regarded as one in Oriental Medical physiology. Spirit is the essence of a function which an organism reveal, and it is regarded in the same with life. For this reason, identification spirit with life is special feature of Oriental Medicine. In Confucianism, Li(理) refers to nature's discipline, which everything under the sun shares. It is similar to the concept of Shin(神) in a broad sense and Sung(性) is similar to that of Shin(神) in a narrow sense. Confucianism's principle is similar to Oriental medicine's, in that they classify Sung(性) into Gi-Jil-Ji-Sung(氣質之性) and Bon-Yeon-Ji-Sung(本然之性), that Sung(性) acts upon man differently according to his disposition, and that materials have an effect on Shin(神)'s action. According to mind's action, there are Human mind(人心) and Moral mind(道心). Human mind(人心) is defined as a mental action of higher degree and Moral mind(道心) is conceived as a mental action related to body. It is similar to Oriental medicine's principle in which Shin(神) is classified into Hun(魂) and Beak(魄) according to its action. Yi(意) is self-control and application, and Zhi(志) is a conscious state in which basic acts towards the object are fixed regularly. Those are similar to the concepts of Oriental medicine.

Key words : Five Mental(五神), Sung(性), Gi-Jil-Ji-Sung(氣質之性), Bon-Yeon-Ji-Sung(本然之性), Human mind(人心), Moral mind(道心), Yi(意), Zhi(志).

서 론

한의학에서 정신과 육체는 不可分離의 것이며, 心身의 기능이 모두 하나의 生命活動이라 보고, 기본 臟器인 五臟과 神을 결부시켜 그 生理와 病理를 論하고 있다¹⁾. 神은 넓게는 인간의 총체적인 생명활동의 근본이치를 의미하며 좁게는 인간의 정신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魂, 神, 意, 魄, 志 五神이나 怒, 喜, 思, 憂, 恐 五志 등이 모두 人神에 포함되는 것²⁾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魂, 神, 意, 魄, 志 五神은 人神이 분화되어 나타나는 정신으로 각기 五臟에 貯藏되어 서로 다른 정신작용을 발휘하여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정신과 육체의 관계, 즉 形과 神의 관계를 다루는

形神論은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중요한 哲學 範疇중 하나이며, 한의학 중 형신에 관한 내용도 철학영역에서의 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유가의 理氣의 관점에서 논술한 性, 理, 氣, 心 등의 개념은 모두 인간의 정신에 관한 철학적인 개념이며 형이상학적인 의미들이며, 이러한 유가의 개념들은 한의학의 발전과정 중에도 영향을 주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유가의 정신개념들을 한의학에 곧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五神의 개념을 더 자세히 연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저자는 인간의 정신구조와 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五神의 개념을 儒家哲學의 性理學의 내용 중 理, 氣, 性, 情, 心, 意, 志에 관한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한의학의 五神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광역시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omdkjs@dju.ac.kr Tel : 042-483-1724

· 접수: 2002/05/30 · 수정: 2001/06/29 · 채택 : 2002/07/22

1) 黃義完 · 金知赫,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p. 39, 1987.

2) 丁彭炫, 神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p. 93, 1997.

본 론

1. 儒家 性理學의 정신에 관한 내용

東洋哲學은 天·地·人 사이에서 인간의 본성과 도리를 깊이 추구하였으며, 人性에 관한 규정은 儒家哲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³⁾. 儒學에서 心性을 논하는 특징은 한의학과 마찬가지로 天人合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儒家의 性命論과 한의학에서 心神論은 다같이 인간의 본질과 우주의 본질을 설명하는 概念인 이상 兩者間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1) 性情

儒家哲學에서 性과 情은 인간의 마음에 내포된 두 가지 次元의 存在樣相이며, 性은 理로써 마음의 본체요, 情은 理氣가 동시에 드러나는 마음의 작용으로 體用的 양면으로 인식되는 것이다⁴⁾. 性을 文字學的으로 고찰해 보면 心의 邊에 生의 숨이 된다. 이렇게 볼 때 性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마음, 즉 性稟을 의미하는 字로, 會意文字이며 形聲文字에 속한다. 본래 性字가 心과 生의 合成語임에서 보여주듯이 生理的 欲求本能 같은 意味도 포함되어 있으나 變遷과정에서 보면 도덕적인 면, 심리적인 면에서 이해하게 되었다⁵⁾. 그러므로, 性字는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內在하게 되는 천부적인 본연의 性인 人性을 가리키는 것으로 定義할 수 있다. 性은 곧 理이다. 그런데 理라고 하지 않고 性이라고 한 것은 理는 천지간에 사물과 사람이 공유하는 이치를 통틀어 말한 것인 반면에 性은 오직 사람에게 있는 理致이기 때문이다⁶⁾. 그러므로 인간의 경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理, 즉 性이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의 인간의 理는 天에서 부여된다. 이것을 人性 또는 性이라 하며 性卽理의 명제가 성립된다⁷⁾. 이렇게 天의 理가 인간이 태어날 때 性으로 인간에게 內在되는 것은 광의의 神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협의의 神으로 인간에게 내재된다고 인식하는 한의학의 내용과 유사하며, 性을 협의의 神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性과 情의 관계에 대해서는, 情은 性이 움직인 것이다. 마음 속에서 아직 發하지 않은 것이 性이며, 사물에 접촉해서 발동하여 나오는 것이 곧 情이라 하여 心의 객관사물에 대한 반응의 의거는 性이고, 心이 性에 의거하여 객관사물에 대해 나타낸 反應이 情이라 하여 性情을 體와 用의 관계로 본 것이다. 情은 性이 발동하는 것이므로 形氣를 매개로 하고 있어서⁸⁾, 氣質의 제약을 받으므로 性이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경

우가 있다¹¹⁾고 하였다. 이는 神이 인간의 몸 안에서 작용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정신의 發顯이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氣質之性和 本然之性

退溪는 人性인 心의 理는 하나이면서도 나누어짐이 있기 때문에 心의 理인 性에 差等を 두었는데, 人性에 차등이 있는 것은 그것이 物에 感해서 發하기 때문일 것이다¹²⁾. 고로 退溪는 性을 本性和 氣稟, 즉 本然之性和 氣質之性으로 나누었다¹³⁾. 退溪는 性이 發하지 않는 한 人性은 氣質과 渾融된 하나의 性이라고 말하고 性이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것을 氣質에 섞지 않고 말하면 本然之性이라 하고 氣質로 나아가서 말하면 氣質之性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天地之性인 本然之性이 形質인 氣稟에 떨어지면 本然之性은 氣稟에 구속되고 隱蔽되어서 다양한 氣質之性을 형성¹⁴⁾하게 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退溪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인간의 본래성은 本然之性만의 存在이지만 氣質, 즉 形質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현실적 인간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존재로 나타나는 것을 氣質之性이라고 하게 됨은 이 때문이다. 여하간 本然之性을 인간의 본래성이라 한다면 氣質之性은 인간의 現實性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본연은 인간의 기질에 부착함으로써 性으로 존재하고 氣質을 통해서 비로소 現實的으로 實現된다. 이리하여 理로서의 本然之性, 氣로서의 氣質之性으로 하여금 현실적인 인간존재를 설명하게 된다¹⁵⁾. 氣質이란 말은 形質과 통하는 것으로 儒家哲學에서 말하는 氣란 곧 形과 유관한 형이하학적인 개념이며, 退溪에 의하면 人性이란 本然之性이 氣稟 속에 들어가 있게 된 氣質之性이지만 그 속에서 本然之性을 가려낼 수는 있다¹⁶⁾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성리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자연규율인 理, 즉 한의학에서 말하는 廣義의 神이 인간에 육신에 깃든 후에는 性理學 개념인 人性, 한의학에서는 狹義의 神으로서 작용하는 데에는 육신인 形質을 根據로 인간의 神인 人神으로서 현실적으로 作用하게 되며, 그 각각의 인신의 작용이 形質에 따라 差等이 있을 수 있고 그 差等안에 보편적인 人性이 있어, 사람이 모두 보편적인 인신을 가지고 있으나 各各의 고유 개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말했다.

3) 心, 人心, 道心

역대 유학자들은 心은 하나의 특수한 존재이며, 일종의 唯一無二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능은 사람의 행위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⁷⁾. 이에 성리학자들은 心과 하나의 心 안에서 작용에 따라서 人心과 道心으로 구별지어 논술하였다.

3) 이경식, 퇴계의 인성론, 인문과학연구 제7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 128, 1989.
4) 금장태, 退溪의 理氣論과 四七論, 종교와 문화 제3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p. 272, 1997.
5) 이경식, 퇴계의 인성론, 인문과학연구 제7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 129, 1989.
6) 陳淳·김영민, 北溪字義, 서울, 예문서원, p. 81, 1995.
7) 이경식, 퇴계의 인성론, 인문과학연구 제7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 130, 1989.
8) 陳淳·김영민, 北溪字義, 서울, 예문서원, p. 101, 1995.
9) 항광명, 주자 심성론의 퇴계 철학적 전개, 大田大學校 大學院, p. 192, 2001.
10) 이상호, 朱子學과 퇴·율성리학, 국학론집 제2집, 경산대학교 국학연구원, p. 280, 1997.

11) 금장태 : 退溪의 理氣論과 四七論, 종교와 문화 제3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p. 272, 1997.
12) 이경식, 퇴계의 인성론, 인문과학연구 제7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 134, 1989.
13) 이상호, 朱子學과 퇴·율성리학, 국학론집 제2집, 경산대학교 국학연구원, p. 80, 1997.
14) 이경식, 퇴계의 인성론, 인문과학연구 제7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 136, 1989.
15) 이경식, 퇴계의 인성론, 인문과학연구 제7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 137, 1989.
16) 이경식, 퇴계의 인성론, 인문과학연구 제7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 135, 1989.
17) 항광명, 주자 심성론의 퇴계 철학적 전개, 大田大學校 大學院, p. 59, 2001.

(1) 心

性理學에서는 마음에는 虛靈한 지각이 있으므로 마음이 몸을 주재하게 되며, 虛靈한 지각도 하늘에 근거하여 理를 좇아 발동하는 것과 마음을 좇아 욕심대로 발동하는 것이 있는데, 양자가 각기 다르다¹⁸⁾고 하여 心의 작용면에서 두 가지로 분별하였다. 心의 구조적인 면에 대해서는, 대개 사람이 태어나는 때는 天地의 氣를 얻어서 형체가 되고, 천지의 理를 얻어서 性이 되며, 理와 氣가 합하면 心이 되는 것이므로 “理와 氣가 숨하여 心이 된다.”라는 명제를 근거로 心은 하나의 물질적인 존재인 동시에 또 정신적인 존재라는 것¹⁹⁾이라고 정의하였다.

朱子學에서 心의 주된 의미는 지각을 가리키는 것이며, 여기에는 인간의 지각능력과 감각과 사유까지도 포함하는 의식일반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朱子は “心은 인간의 지각으로 몸을 주재해서 사물에 응하는 것이다”라고 하여²⁰⁾, 心을 능히 知覺하여 外物에 응하는 주체로 理解했으며 五神 중 思惟의 기능을 하는 意의 개념도 心에 포함하여 말하고 있다.

退溪는 “理와 氣가 숨하여 心이 되니 자연히 虛靈知覺의 妙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心의 구조적 측면에서 理氣의 숨으로 규정했으며, 理氣로서 心의 본질을 논하고, 근본에서부터 ‘天人合一’의 유가사상의 종지를 밝혔다. 退溪는 마음을 理와 氣가 結合한 것이라는 기본인식 위에서 虛靈이라고 표현한 지각능력과 지각이라고 표현한 知覺作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退溪는 마음의 본체를 가리키는 虛靈의 개념을 마음이 虛한 것은 理이며, 靈한 것은 氣라고 하여 마음이 理氣의 결합임을 제시하여 虛·理와 靈·氣로 더욱 미세하게 분석함으로써 마음이 理氣를 결합하고 있는 주체로 확인하고 있다²¹⁾.

(2) 人心과 道心

心은 의식활동의 결과로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道心과 人心이라고 구분하여 불리운다. 이에 대해 朱子は “사람에게는 단지 하나의 心이 있을 뿐이다. 다만 道理를 지각할 수 있는 것은 道心이고 聲色臭味을 지각할 수 있는 것은 人心이다.”라고 말하여²²⁾ 인간의 의식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形而上의 개념을 지각하는 것은 道心이라 하였고, 形而下學的인 인간의 肉身에 의한 감각을 근거로 지각하는 것은 人心으로 분별하였다. 사람마다 人心과 道心 이 두 가지 心이 있는데, 人心은 혈기에서 생기고, 道心은 天理에서 생긴다. 人心은 생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예를 들면 饑寒痛痒 등은 人心의 感覺이고, 道心은 윤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惻隱, 羞惡, 是非, 辭讓 등의 감정은 道心의 감각이다²³⁾라고 하여 人心은 인간의 기초생리적인 감각임을 말하였으며, 道心은 人心보다 고차원적인 사유활동으로 구분하였다. 朱子は 人心과 道心의 내원이 서로 다

른 것이라 하였다. 道心은 “性命之正”에 근원하고 理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반면에 人心은 “形氣之私”에 근원하며 氣의 범주에 속한다. 道心과 人心이 비록 서로 같은 一心의 지각이긴 하지만, 道心은 義理쪽으로 發한 지각이고 義理쪽으로 發한 지각은 天理에 부합되며, 人心은 생리적 욕망 쪽으로 發한 지각이라 하였다. 人心과 道心은 절대 나눌 수 없으며, 또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된 것이 아니며, 道心과 人心이 ‘雜于方寸之間’이라는 것은 하나의 心에 두 가지 방면을 말하는 것²⁴⁾이라고 하여 心의 작용이 人心과 道心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을 형기지사인 인간 육체의 생리적 욕망을 따라 작용하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였고,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心이 작용하는 측면에서 分別하여 말한 것이다. 결국 人心, 道心은 心 하나의 作用에 따른 두 가지 모습일 뿐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이다.

이로써 볼 때 人心과 道心은 서로 구분되어서 존재하는 정신이 아니고 心 하나의 두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魂魄을 神의 陰陽의 구별된 형태라고 하는 한의학의 정의와 비교할 수 있으며 人心은 形氣之私에 根本하여 생리적 욕망 쪽으로 發하여 饑寒痛痒 등의 감각을 느낀다고 하는 魄의 개념과 유사하고, 道心은 좀 더 고차원적인 사유활동으로 보아 魂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4) 意志

意는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생각과 운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대개 情이란 性의 움직임이고 意는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意는 마음에서 발생하는 한 가닥 생각으로서, 이리이러하게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운동하는 것이다. 情의 움직임은 전체적인 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意는 한 가닥 생각이라는 면에서 이야기한 것이다²⁵⁾. 退溪는 마음의 주체적 발동으로서 意가 성품의 자연적 발동으로서 情을 잠악하여, 자율적 의사에 따라서 天理를 따라 善을 실현하기도 하고 人慾을 따라 惡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악이 결정되는 근거와 책임은 意의 자율성에 귀속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에는 구성요소로서 性情과 주체적 자율성으로서 意가 구분되어 인식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志에 대해서는 志란 마음이 가는 것이며, 간다는 것은 向한다는 말이다. 즉 마음이 정면을 향해서 줄곧 그곳으로 나아가감을 뜻한다. 곧장 무엇을 찾아 나아가고 그 대상을 반드시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志이다. 그 과정에서 뜻이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다른 데로 풀린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志라고 부를 수 없다²⁷⁾고 하여 어떤 한 생각이 고정되어서 한 곳으로 集中되어 있는 상태를 意味한다고 할 수 있다.

意와 志에 대해서는 性은 마음의 본체, 情은 그 작용, 意는 그 작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까 저렇까 헤아리는 것²⁸⁾이라 하고, 意와 志를 구분하여 意는 일반적인 행위의 동기이고 志는 목표를 향한 기본적인 행위의 방향이라 하였으며 그것들은

18) 陳淳·김영민, 北溪字義, 서울, 예문서원, p. 93, 1995.

19) 韓光명, 주자심성론의 퇴계 철학적 전개, 大田大學校 大學院, p. 59, 2001.

20) 이상호, 朱子學과 퇴·율성리학, 국학론집 제2집, 경산대학교 국학연구원, p. 286, 1997.

21) 금장대, 退溪의 理氣論과 四七論, 종교와 문화 제3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p. 272, 1997.

22) 이상호, 朱子學과 퇴·율성리학, 국학론집 제2집, 경산대학교 국학연구원, p. 286, 1997.

23) 韓光명, 주자심성론의 퇴계 철학적 전개, 大田大學校 大學院, p. 79, 2001.

24) 韓光명, 주자심성론의 퇴계 철학적 전개, 大田大學校 大學院, p. 82, 2001.

25) 陳淳·김영민, 北溪字義, 서울, 예문서원, p. 111, 1995.

26) 금장대, 退溪의 理氣論과 四七論, 종교와 문화 제3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p. 273, 1997.

27) 陳淳·김영민, 北溪字義, 서울, 예문서원, p. 106, 1995.

28) 이상곤, ‘意志’의 성리학적 분석과 도덕적 의의, 원광대사회사상연구 vol. 3, p. 72, 1993.

다 情에 속하는 것²⁹⁾이라고 하여 意를 마음이 가는 바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하고, 志를 意가 固定不移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한의학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2. 五神과 性理學의 心·性情과의 상관성

性理學의 人性論은 우주의 형이상학적 자연법칙인 理가 인간의 形質에 깃들어 性과 情이 되어 그 體用적 작용에 의해 발휘되는데, 朱子의 心性論을 한마디로 말하면 ‘心包性情, 心統性情’이라 하여 性이란 것은 다만 각 개인의 마음속에 具有되어 있는 인간의 理이며³⁰⁾, 理氣를 겸하고 性情을 통솔하는 것은 마음³¹⁾이라 하였다. 또한 理氣와 性情의 작용을 體와 用의 개념으로 설명하여 한의학에서 五神의 모든 활동이 결국은 神에 의해 統攝되며, 五神 각각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으로서 하나의 人神을 體로 하여 시공에 따라 분화하여 다르게 나타나는 변화상에 불과한 것³²⁾으로 理解하는 것과 유사하다. 性은 宇宙의 理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을 말하며, 廣義의 神이 인체내에서 정신활동의 총체로 활동하는 狹義의 神 개념과 유사하며, 情은 한의학에서의 감정상태인 七情과 다르며, 人性인 神이 모든 外部事物에 反應하여 五神으로 分化되는 過程과 類似하다고 할 수 있다. 천지간에 사물과 사람이 공유하는 理致, 즉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공유하는 자연규율의 의미인 理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附與되어 인간의 육체에서는 性으로 작용한다는 개념이 한의학에서 ‘兩精相搏 謂之神’이라 하여 부모의 精에 의해서 인간의 몸을 이루는 形質이 生한 후에 精神이 形質에 깃든다고 인식하는 것과 유사하며, 따라서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보편적인 인간의 정신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천지의 이치인 理는 廣義의 神으로 볼 수 있으며, 理가 인간의 몸 안에서 작용하는 性은 狹義의 神으로 볼 수 있다.

氣質之性과 本然之性에 관한 내용에서는 인간이면 모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本然之性이 인간 각자의 기질인 육체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고 하여 정신이 활동하는 의지처가 되는 육체가 정신의 발현에 일정한 조건으로 영향을 주며, 그에 따라 차등이 생기며 人性에 差等이 있는 것은 그것이 物에 感해서 발하기 때문³³⁾이라 하여, 廣義의 神이 인간의 神으로 나타나는 인성에 차등을 두고, 의식활동에 따라 분별해서 설명하여 형이상학적 개념인 神이 형이하학적 개념인 形質에 반응하여 작용을 하며, 이 작용함에도 차등이 있음을 말하여 五神 각각의 작용을 분별하여 말하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작용에 분별이 있음을 말하였다.

人心과 道心에 관한 내용에서는 理發과 氣發의 先後差異를 기준으로 구분했지만 결국 인간이 육체의 形氣之私에 바탕을 두고 生理의인 욕구에 기준하여 작용하는 精神을 人心이라 하여, 한의학에서 魂, 魄을 무의식 상태에서 본능적인 동작과 정신현상, 卽 귀의 청각,目の 시각, 피부의 冷熱痛覺 등의 감각, 수족

四肢의 동작, 嬰兒가 울어대는 것이나 젖을 빠는 것³⁴⁾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며, 道心은 魄과 人心은 魂과 유사한 개념이다. 意와 志에 대해서는, 意는 性情이 發한 후에 마음의 주체적 발동으로서 자율적 의사에 따라 생각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志는 어떤 목표를 향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생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런 내용은 意는 心이 생각하는 바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하고, 心에서 일어난 생각을 운용하며 思惟하는 五神 중 意와 같은 개념이며, 志는 意가 결정되고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바라고 정의하는 한의학에서의 개념과 상당히 가깝다.

결론

五神에 대한 한의학의 내용과 유가의 성리학의 내용을 비교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性理學에서 理는 우주의 만물이 공유하는 자연규율을 말하는 것으로 廣義의 神 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理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性이라 함은 狹義의 神 개념과 유사하다. 性을 氣質之性과 本然之性으로 나누어 性이 인간의 氣質에 따라 작용함에 差等이 있다고 하여 神이 작용함에 물질적 바탕이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한의학의 내용과 유사하다. 人心과 道心은 心의 작용면에 따른 구별인데, 道心은 보다 고차원의 정신작용으로 人心은 육체와 관련된 정신활동으로 인식하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점은 神을 작용에 따라 魂魄으로 구별하고 있는 한의학의 내용과 유사하다. 意는 생각의 자율과 운용이라 하고, 志는 목표를 향한 기본적인 행위의 방향이 일정하게 고정된 의식상태라 하여 한의학의 개념과 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참고문헌

1. 黃義完·金知赫,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1987.
2. 丁彭炫, 神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1997.
3. 이재봉, 유가의 인간이해, 外大論叢 第19輯 5號, 1999.
4. 이상곤, ‘意志’의 성리학적 분석과 도덕적 의의, 원광대사회사상연구 vol.3, 1993.
5. 陳淳·김영민, 北溪字義, 서울, 예문서원, 1995.
6. 이경식, 퇴계의 인성론, 인문과학연구 제7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9.
7. 장윤수, 정주철학원론, 서울, 이론과 실천, 1992.
8. 韓光明, 주자 심성론의 퇴계 철학적 전개, 大田大學校 大學院, 2001.
9. 金宗태, 退溪의 理氣論과 四七論, 종교와 문화 제3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7.
10. 이상호, 朱子學과 퇴·울성리학, 국학론집 제2집, 경산대학교 국학연구원, 1997.
11. 金恩善, 腦와 心, 神의 相關性에 對한 文獻的 研究, 大邱韓醫科大學大學院, 1991.
- 34) 金恩善, 腦와 心, 神의 相關性에 對한 文獻的 研究, 大邱韓醫科大學 大學院, p. 31, 1991.

29) 이재봉, 유가의 인간이해, 外大論叢, 第19輯 5號, p. 12, 1999.

30) 장윤수, 정주철학원론, 서울, 이론과 실천, p. 40, 1992.

31) 韓光明, 주자 심성론의 퇴계 철학적 전개, 大田大學校 大學院, p. 54, 2001.

32) 丁彭炫, 神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p. 42, 1997.

33) 이경식, 퇴계의 인성론, 인문과학연구 제7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 134, 1989.